



원로와의 대담

서울대 명예교수 · 학술원 회원

沈鍾燮 박사

대담 / 朴澤奎 <건국대 이파대학장/본지 편집위원장>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초과학 튼튼해야”

매시를 긍정적으로 처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골이 장대하시고 특히 외모에서 풍기는 특이한 인상이 젊은이 못지 않게 혈기왕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시를 낙천적으로 바라보시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관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러하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비판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도 안되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생활철학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봉직할 때나 관직에 잠시 몸담고 있을 때나 여러 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매시를 낙천적·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찰없이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부농 외아들로 자라

선생님의 성장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1917년 8월 26일에 전북 김제군 백구면 학동리 85번지에서 태어났어요. 부농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가정에서 어려움없이 성장했지요. 고향의 부용보통학교(6년제)를 졸업하고

이리농림학교(5년제)에 입학하여 37년에 졸업했어요. 이 학교는 초기에는 관립이었는데 다른 학교보다 2주 먼저 도청소재지에서 전국 규모의 시험을 치렀어요. 등록금도 적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로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지요. 부모님은 외아들이라 집에서 통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20리 길을 자전거로 통학했어요. 그것이 건강유지의 지름길이었던지 5년간 개근했습니다. 그후 수원고등농림학교 입학과에 입학, 41년도에 졸업했어요. 당시 수원고농은 농·임·축산학과 합해서 정원이 1백명이었는데 이중

20%가 한국인이었지요. 수원으로 가서는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임학과는 징집면제 특혜

선생님께서 임학과를 전공하신 특별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임학을 전공한 동기는 우리나라에 별거숭이 산이 많다는 점, 그리고 임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전망이 좋았다는 점이 큰 이유였습니다. 25세에 일본 큐슈제대 농학부에 입학해서 45년에 졸업했어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때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징집되었는데 임학과 출신은 목재를 재료

때 이때 교수로 발령을 받았고 46년에 서울대가 종합대학교가 되면서 그해 10월에 서울대 농대 전임강사로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지요.

서울대 농학박사 제1호

서울대 농대의 산 증인으로는 현재 조백현교수와 선생님 두분뿐이고 더군다나 계속 활동하고 계신 분은 선생님 혼자시군요. 가족이야기와 임친이야기도 들려주시지요.

장남 舜求(48·아시아나항공 보급담당이사), 차남 尙求(45·동아건설 건축부 건축담당부장), 그리고 장녀 正妃(51·미국 MIT부설 생물연구소 연구

받고 지도교수가 미시건대로 옮김에 따라 이 대학에서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일생동안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님의 작고소식을 때늦게 전해들은 겁니다. 미시건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들에게 당신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에게 엄명을 내리신 겁니다. 나라돈으로 먼 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절대로 당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임중하실 때의 아버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하셨던지 그후 가족들의 편지에는 항상 아버님 병환이 나아지셨다고 거짓으로 꾸뻐던 겁니다. 6개월 후 친구에게서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보따리 싸들고 귀국했지요. 불효를 아무리 뉘우쳐도 무슨 소용 있었겠어요. 아버님의 큰 뜻을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연구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되었어요. 돌아와 보니 농대를 지킬 사람이 별로 없었고 조학장님과 상의했더니 미국에서의 연구내용이 좋으니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제1호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61년까지 서울대에서 계속 교수로 일했지요.

산림국장 4년 '綠化 기적'

선생님의 다채로운 경력중에서도 4년간 농림부 산림국장으로 우리나라 산림녹화사업의 시령탑 역할을 하신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5·16혁명이 일어나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사중의 하나가 산림녹화



◇서울대 제 1호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던 애기로 심탁사(중)와 박태규편찬위원장(右)이 정담을 나누고 있다.

로 하는 군수물자 기술개발에 중사하게 되므로 징집에서 면제되었어요. 임학을 전공한 덕분에 대학을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졸업장을 받기 직전에 모교인 수원고 농에서 촉탁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어요.

일본인들이 떠난 다음 한국인으로서 조백현교수, 지영린교수 그리고 나와 뒤에 현승규교수 등 모두 4명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꾸려나갔습니다. 군정산하에서는 수원농림전문학교였는

원)를 비롯해서 친손, 외손 6명이에요. 그리고 내자는 지난 91년에 세상을 떠났지요. 수원에 있을 때 관상을 본 적이 있는데 30세 이후에는 고국을 떠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하게도 그것이 적중하여 49년에 정부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6·25 때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내가 34세때인데 당시 큰 애가 국민학생, 막내는 겨우 한살때였어요. 전쟁중에 가족들은 김제 본가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지요. 51년에 예일대에서 석사학위를

였지요. 이때 특별법인 산림녹화임시조치법 제정과 함께 산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애림사상이 바로 애국심으로 승화된다는 운동을 전개했지요. 지금도 푸른 산을 보면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45~49세의 인생의 황금기를 산림국장으로 보내면서 업자들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않았고 누가 내집에 무슨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면 가정부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문제에 초연했던 지난날의 생활신조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FAO 보고서에 세계의 기적중의 하나로 한국의 산림녹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큰 자랑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전북대 총장 7년후 정년

산림녹화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성공을 거두신 선생님의 업적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재직 26년동안 학생처장, 농대학장 등을 역임하셨고 76년 1월에 전북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서울대 재직시절에는 유기천 총장 밑에서 학생처장을 지냈어요. 다행스럽게도 학생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학생도 없었고 남산에 끌려간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지요.

전북대 총장시절을 회고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76년 1월부터 82년 8월까지 재임하고 정년을 맞았어요. 당시 전북대는 캠퍼스 안에 민가 14채가 있을 정도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새로 학교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전북대 건설에 보람을 느끼고 특히 고향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니

다. 사심없이 모든 정성을 쏟은 결과 오늘날 공사에 철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지금도 내가 이야기하면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으로 초빙된게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원회장 때 청사 마련

선생님께서서는 학술원 회장으로 학술원 건물신축,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학술원에서의 일들을 회고하신다면...

57년 학술원의 정회원이 된 이래 분과위원장, 자연과학부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술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왔지요. 그리고 얼마전 작고하신 신태환 박사 후임 회장선출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요새 흔한 교황선출방식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의해 2명을 선출, 결선투표를 하는 선거방식이었어요.

83년에 회장에 취임했는데 그때가 학술원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내가 해야 할 일로 3대과제를 설정했지요. 첫째가 문화보호법 개정의 회오리가 거세던 당시 법률을 원상복귀시켜 학술원법으로 고치는 일, 다음이 셋방신세를 면치 못했던 학술원 청사를 신축하는 일, 그리고 자치기금확보를 위한 학술연구재단을 설립하는 일 등이었어요. 그밖에 30년사 완성, 학술원 운영의 활성화 등이었지요. 2년 임기의 회장을 3회 연임하면서 이러한 과제를 완수했어요. 학술원부지를 구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어요. 국립도서관 끝이 서초공원부지였는데 이 부지를 기증받아서 결국 거기에 학술원 건물을 지었지요.

오늘날 독립된 학술원 건물이 조용한 수풀속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학술원이 제 모습을 갖춘 것이 내 임기중이었구나”하는 자랑을 하게 되지요. 학술원 40년사에 회장시절을 회고하는 글도 실었어요.

그리고 과총에 대해서도 큰 애착을 느끼고 있어요. 김윤기선생(고향선배), 내 학위논문을 심사했던 김동일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선배들 밑에서 과총 설립당시 농산부문 부회장으로 맡은 역할을 열심히 했으며 윤리강령, 용어제정사업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정직한 삶이 내 생의 목표

선생님께서서는 여러 학회회장을 역임하시고 많은 훈장도 받으셨습니다. 논문, 저서 등의 소개와 함께 아울러 인생관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임학회와 한국목재공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수용성 추출물이 목재의 물리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40여편의 논문이 있으며 황조소성훈장, 동백장, 무궁화장, 학술원상 등을 받았어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끝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지난 세월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약진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고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